

# 시선

## 사설

### 무엇을 위한 SW융합 교육인가

우리학교는 지난 3월, 6.3대 1 경쟁률을 끊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최장 6년 동안 최대 1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학교는 사업을 통해 '미래산업을 주도할 V자형 융합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사업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도와 우리학교의 목표는 옳다. '4차 산업시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은 둘째 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이전과 비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분명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산업을 주도한다는 우리학교의 준비 태도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내년 1학기 출범을 앞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시작부터 반쪽이다. 전자정보대학 소속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분리해 만드는 신설 단과대는 당장 전정대학·응용과학대학과 공간, 행정 조직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미 80%에 육박하던 전정대학·응용과학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가 가중될 것임은 자명하다. 새로운 교육에 불가결한 행정적 지원 역시 기존 전자정보대학과 다를 바 없다.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기업만 쳐다보고 있던 산학협력관 건설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무산됐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행할 주체인 전임교원이 단 두 명뿐인 상황이다. 빈자리는 타 학과 교수들의 겹임으로 채워진다.

비전공학생의 SW 활용 능력 함양을 목표로 내걸고 내년부터 도입될 'SW 기초교양' 역시 그 기형적인 형태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교생이 들어야 하는 기초교양의 취지에 부합할 만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거나 커리큘럼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 후마니타스칼리지 배분 이수교과 과목 중 소프트웨어와 관련 있는 과목들을 SW 기초교양으로 지정하고 이를 이수케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바뀌는 것은 없다. 학교는 장밋빛 계획안으로 사업을 떠났다. 사업 선정의 결과로 지원금도 받았다. 이를 성과로 대내외에 공표했다.

그렇다면 학교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사업의 목표와 지원금은 모두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정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뀌는 것이 고작 실습실 기자재 몇 대 뿐이라면 사업 관련자들에게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고사양의 기자재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SW 활용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신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새로운 교육단위로서 신입생을 맞이할 것이다. 이미 수시모집도 마감됐다. 타 전공 2018학년 신입생들 역시 SW 기초교양을 필수로 이수해야 할 것이다. 2017학년까지가 수강했던 것과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 배분이수 강의를 말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백년을 바라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현재의 모습만을 미뤄보면 본말이 전도된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떠오른다. 다시 한 번 사업 준비 상황에 대한 진지한 재고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21일 Peace BAR Festival 개최 촛불의 의미 돌아본다

미디어 여론동향 2017. 9. 4 ~ 9. 17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폐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어제까지가 수강신청 정정기간이었는데 오늘 폐강 문자를 받았다'는 글(#경희술\_24165, 2017.9.8)의 글쓴이는 '정정기간 다음 날 폐강 통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반 친구는 아예 폐강 문자조차 못 받았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에게 무관심하고 계절학기를 들으라는 행정실의 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이 글은 281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학생들은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계절 학기는 누구 짐 개 이름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경희대학교 총동문장학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장학



### 이 주의 주제 - 합리적 폐강기준 마련해야

## 그들만이 사는 세상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강을 원하는 전공강의보다 '열릴 가능성이 있는' 전공강의를 찾는다. 정작 원하던 강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해 곧잘 폐강되거나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수강신청 기간과 정정 기간, 두 번에 걸쳐 시간표를 짜야 한다. 그렇게 두 번이나 시간표를 짜고 나면 그들이 정말 원하던 강의는 공지사항 폐강공고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그들에게 전공선택 과목은 선택이 아니다.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 열릴만한 강의를 찾다 보면 선택은 어느덧 부담스러운 필수과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는 170명이 넘는 정원을 가진 큰 학과도 있지만, 정원이 그 4분의 1도 되지 않는 학과도 있다. 정원이 소수인 과, 그런 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만의 이야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많지 않으나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는 점이다.

취재 도중 만난 그들은 누구보다 학과를 사랑했다. 기자가 하나를 물으면 둘을 알려줬고 더 궁금한 것은 없는지, 더 알려주기 위해 먼저 다가왔다.

학과의 어려움을 들려달란 기자의 요청에 A4 3장은 족히 되는 분량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자신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의 미래까지 걱정했다. 2014년도에 개정된 우리 학교의 전공과목 개설기준은 한 강의 당 최소 1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달하는 강의는 학칙에 따라 폐강된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학과는 한 학년 정원이 고작 30명 남짓이다. 강의가 원하는 만큼 열릴 수 없는 구조다. 매 학기 폐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행정실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들을지에 대한 고민 이전에 강의 개설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반복된다. 정원이 소수인 학과에 대한 전공과목 개설기준의 개선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그들 역시 타 전공 학생들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지만 타 전공 학생들보다 전공 선택권이 현저히 낮다. 학교 측은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규정'이니까 일방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번 학기도 수강신청이 끝났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앓아야 했고 폐강 공고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행정실은 전화를 돌려가며 폐강을 막아야 했고 휴학생은 낭겨진 동기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듣지도 않을 강의를 신청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은 '그들만이 사는 세상'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취재 중 만난 한 교수는 "예외 없는 규정이 있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제는 소외된 그들의 어려움을 다시 조망할 때다.

총불에 담긴 시민의식을 돌아보며 전환문명 시대에 필요한 시민사회에 역할을 논의하는 원탁회의가 열린다.

대통령 주치의인 경희대 한방병원 김성수 병원장이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한방주치의' 김성수 경희대 한방병원장, 옥조근정훈장 포상/한국경제 외, 2017.9.8)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김 원장은 1986년부터 30여 년간 경희대 한의과 대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그는 경희대 한방병원장으로 재직하며 한의학 치료의 전문화, 과학화에 앞장서고 있다

13일 오후 마감된 경희대 서울캠퍼스 수시모집 최종 경쟁률은 25.36대 1로 나타났다. (경희대, 논술전형 Hospitality경영 막판에 지원자 몰려/동아일보, 2017.9.13) 학생부종합전형은 18.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생물학과 경쟁률이 49대 1로 가장 높았고, 회계·세무학과의 경쟁률이 7.29대 1로 가장 낮았다. 논술 우수자전형은 72.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17.3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한의예과(인문)에 이어 의예과, 간호학과, 치의예과 등 의학계열이 강세를 보였다. 생물학과, 언론정보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등도 8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 청년을 짓밟다

#### 세시봉

양윤주 (서울캠퍼스 뉴스팀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계획을 밝혔다. 대기업들도 줄줄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CJ그룹은 하반기 채용 인원의 약 20%를 학교나 학점 정보를 제외하고 뽑았다. 카카오 또한 블라인드 공채로 신입 개발자를 선발했다.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굵직한 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을 택했다.

직무 수행과 크게 상관없는 학벌, 나이, 연고 등을 빼고 개인 역량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다.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취준생의 82.2%가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어딘가 석연치 않았던 정보를 채워 넣어야 했던 이력서를 뒤로하고 공정한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기대가 커져가는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전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그 기대를 한 순간에 절망으로 바꿔버렸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랜드가 채용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493명, 무려 95%가 국회의원의 청탁 등을 통해 부정 입사한 것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랜드 인사담당자는 하루에 200통도 넘는 청탁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날고 긴다는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절절한 부탁을 하니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들은 특정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여건을 조작하고, 채용절차 도중 전형방법을 바꾸고, 점수를 조작했다. 그래도 안 되면 합격자 수를 늘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 공정 기한다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한쪽에선 그들만의 채용

이는 수많은 청년들의 팜방울을 비웃는 비극이다. 더불어 채용비리의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이 비극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취준생들에게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개인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블라인드'를 쳐 두고 '수저'로 다른 모습의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매년 최악을 간신히하는 청년 실업률 통계를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절박하게 살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고 꾸미며 충실한 부품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취준생 중 노력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을까.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진다. 노력하라는 말을 듣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노력하지 않은 자의 승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가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은 그 길에 필요한 재료일지 모른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을 아무 배경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제2의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탄생하지 않기를, 그래서 모든 청년이 정의로운 결과를 받아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이수형 | 저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도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